

글 : 김미라 로사와  
교사들

### 칠보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이야기

첫영성체를 준비하는 초등학생들의 평일미사를 마친 시간, 악수를 하며 헤어지는데 그들이 예뻐서 그런지 손에 힘이 들어간다. 이제는 여러 번 당한(?) 일이라 선생님 손을 흔들며대며 즐기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아프다고 슬슬 피해보려는 친구도 있고 오히려 나보다 더 힘을 주어 선생님 손이 아프도록 꼭 잡고 흔드는 친구도 있다. 고마운 일이다.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주님의 아름다운 솜씨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순수한 마음을 느낄 때 박장대소를 하게 되거나 어른들이 생각지 못했던 빼있는 말 한마디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도 많다.

주일학교 봉사는 잔손이 많이 가고 결정할 일이 많지만 고맙게도 동료 교사들이 서로 도와가며 준비해주어 공동체의 장점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한 가지 일을 하지만 몇 갑절의 일이 진행되고 끝나는 신기한 과정을 계속 겪게 되니 ‘하느님의 일은 함께 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생겼다. 또한 주일학교 친구들의 숫자가 늘어 날 때에는 너무 기쁘기도 했으나 대표교사로서는 교사수가 걱정이었다.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칠보의 봉사자라면 누구든지 아는 사실이었지만 교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같았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청하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2주일 만에 주일학교 교사가 두 분이나 새로 들어와 주신 일은 잊을 수가 없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었다. 오!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어쩌다 자모님과 통화를 하게 되면 아이가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묵주기도까지 얼마나 열심히인지 모른다며 아이로 인해 기도하게 되었다며 감사하다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다가서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대견한지..... 어린이들이 온전히 하느님을 의지하며 하느님! 하고 불러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고 경이로운 일이다.

### 교사들 이야기

첫영성체 교리의 첫날~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하는지 고민하며 교리실에서 기다리는데 학원 마치고 교리시간에 행여 늦을까 싶어 헬레벌떡 뛰어 들어오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나의 입가에 기쁨의 미소가 지어졌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교리시간 마다 동그란 눈으로 바라보며 열심히 배워가는 칠보성당의 작은 예수님인 첫영성체 친구들~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축복과 은총의 선물이 가득하길 하는 맘으로 지금 이순간도 하늘을 향한 화살을 쏘아본다.

- 첫영성체는 중요하니까요 선생님

3페이지에 계속..